

Yeosu Web Contents

2024년 02월 26일 01시 18분



목차

목차	2
보도자료 - 전체	3
여수시, 11월의 독립운동가 화양 창무 태생 '윤형숙 선생' 선정	3

보도자료

해명자료

여수시, 11월의 독립운동가 화양 창무 태생 ‘윤형숙 선생’ 선정

2023.11.02 조회수 128 담당부서 사회복지과 담당자 정세정 연락처 061-659-3657

3.1운동 활동...독립운동 역사적 가치 재조명

여수시(시장 정기명)가 11월을 맞아 독립운동가로 여수 화양 창무 태생 ‘윤형숙(윤○○)선생’을 선정하고 홍보에 나섰다.

‘윤형숙(윤○○)선생’은 1919년 3월 10일 광주 수피아여학교 학생으로 대한독립만세를 외치며 행진하다 일본 헌병이 휘두른 칼에 왼팔이 잘려 나감에도 오른팔로 떨어진 태극기를 들고 독립만세를 외쳤다.

이후 일본 헌병에 체포되어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심한 고문으로 오른쪽 눈마저 실명했으며,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4월과 4년 연금형을 선고 받았다.

석방 후에도 국민계몽운동, 반공청년운동을 하다가 인민군에 붙잡혀 집단학살을 당해 순국하여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04년 건국훈장을 추서한 바 있다.

시 관계자는 “조국을 위해 희생하신 독립운동가들 덕분에 지금의 대한민국, 지금의 여수가 있다”며 “우리 지역 독립운동가를 잊지 않고 기억할 수 있도록 독립운동가 홍보에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여수 출신 독립운동가의 역사적 가치를 재조명하고 독립정신 확산을 위해 작년 8월부터 독립운동가유족회와 공동으로 지역출신 독립운동가를 발굴 선정해 홍보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모두 83명을 추서했다.

2023. 11.

남해안 거점도시 **미항여수**

여수 출신 이달의 독립운동가

- ▶ 성 명 : 윤형숙(尹亨淑)
- ▶ 출 생 지 : 여수 화양 창무 출생
- ▶ 출생연도 : 1900년 9월 13일
- ▶ 사 망 일 : 1950년 9월 28일
- ▶ 운동분야 : 3.1운동
- ▶ 훈 격 : 건국포장(2004)
- ▶ 공적내용



○ 1919년 3월 10일 광주 수피아여학교 학생으로 대한독립만세를 외치며 행진하다

(<http://www.yeosu.go.kr>)

일본 헌병이 휘두른 칼에 왼팔이 잘려 나감에도 오른팔로 떨어진 태극기를 들고 독립만세를 외침.

- 이후 일본 헌병에 체포되어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심한 고문으로 오른쪽 눈마저 실명되었으며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4월과 4년 연금형을 선고 받음.
- 석방 후 국민계몽운동, 반공청년운동을 하다가 인민군에 붙잡혀 집단학살을 당해 순국함.
-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2004년 건국포장을 추서함.



첨부파일

[전체\(Zip\)다운로드](#)

7 여수시, 11월의 독립운동가 화양 창무 태생 '윤형숙 선생' 선정.jpg (102 hit/ 367.5 KB) ↓

[미리보기](#)

[목록](#)

이전글

여수시 “지방세 환급금 찾아가세요”

다음글

여수시, 올해 해외 MICE유치 마케팅 막바지 총력...

Yeosu Web Contents

